

열방빛선교회(황금종교회) 대표 및 담임 최광목사

*그는 누구인가?

탈북자 선교실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내래,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내래, 죽어도 전하겠습니다” 총 4권의 저자인 그는 누구보다 북한선교 사역을 잘 알고 북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한다. 중국에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추방될 때까지 1차 사역을, 2008년 재입국해 2010년까지 2차 사역을 통해 탈북자들을 북한선교사로 양육하는 사역에 생명을 쏟아 부어 탈북자 350여 명을 영입, 250여 명을 예수 믿도록 하였고, 80명 이상을 북한인 선교사로 세웠다. 또한 2010년 이후에 한국에서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독반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99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오직 성경통독과 기도의 방식으로 23명의 목회자 및 신학생을 길러냈다.

그의 사역은 탈북자를 북한선교사로 세워 북한 복음화에 일조했다는 점과, 성경 통독과 기도를 통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약력

1956년 경북 경산 출생, 영남대·대구신학교·총신신대원 졸업, 199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선교 사역, 현, 황금종교회 담임 및 열방빛선교회 대표



1. 북한선교사역! 고뇌의 시작

하루 통독 8시간 기도 2시간 군대식 일과. “이거 지금 우릴 살리자는 겠까? 죽이자는 겠까?” 그러나 나는 저들을 북한선교사들로 키우고 싶었다...

1998년 8월 총신대학원 3학년 방학 때였다. 36세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한 나는 당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곳을 간절히 찾았다. 그 곳이 어디든 상관없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 선교동아리인 NSM 선교회 박주안 목사님의 소개로 성경통독반의 탈북자 주광호 선생과 네 명의 북한 형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평생을 북한선교에 헌신하게 하셨다. 그때 내 나이 43세였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 무지했던 내가 난생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고난의 행군 굶주림을 피해 중국 땅에 던져진 그들은 모두 몸집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만 했다. 온 몸에 성한 곳이 없고,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불안한 눈빛은 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다. 그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걸핏하면 자들끼리 다투었다.

나는 선교사가 없어 겨우 겨우 유지되어가던 사역장에 규칙을 세우고 본격적인 통독에 들어갔다. 아침 6시면 전원을 기상시키고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아침 예배를 드렸다. 7시 반부터 12시까지 4시간 성경통독 후에 오후 3시까지 점심식사와 휴식, 4시까지 한 시간 기도, 다시 7시 반까지 성경통독을 진행했다. 저녁 식사 후에 다시 1시간 동안 성경통독을 하면 하루에 신약성경 1독을 끝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하면 모두 지치고 힘들어 당장 쓰러질 지경이 된다. 감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싸울 틈이 없다.

이렇게 매일 신약성경을 1독씩 어김없이 통독해 나갔다. 신약성경을 9독 하면 구약성경을 1독 하는 순으로 북한 형제들과 함께 통독을 이어 나갔다. 형제들은 모두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나오는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이렇게 사역장을 이끌어

가니 급기야 북한 형제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거이 뭐임까? 지금 우리가 뭐 하구 있는 겠까? 왜 담배두 못 피게 하구 술도 못 먹게 함까? 왜 밖에도 맘대로 나가지 못하게 함까? 이거 지금 우릴 살리지는 겠까? 죽이지는 겠까? 이거야 정말 하루도 아니고 맨날맨날 이 모양이니 사람이 빠져 (건더)내겠습까? 성경공부 꼭 이렇게 해야 됩까?”

형제들은 북한 군대에서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했다. 그 때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담배는 맘대로 피웠다는 것이다. 탈북 후 생존의 위협 속에서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들에게 술과 담배는 삶의 유일한 낙이었고, 생활의 일부이었다. 이들에게 갑자기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또한 형제들 대부분 공부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지라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하루 8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들에게 그때그때 밥이나 먹여주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주체사상에 의해 평생 세뇌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훈련되어 북한 출신의 새로운 선교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했다. 그러자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인간적으로야 마음 아프지만 힘들어해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들과 같은 집에 살면서 24시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땀 흘리며 모든 일과를 같이 진행하자 북한 형제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중국 연길에서 함께 통독한 1기생들 함께

2. 배고픈 동포여! 밥 대신 금식합시다.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돈이 떨어져서인지 많이 불안. 금식 설명 후 마구 소리를 질러대며 화를 내는 북한 형제들. 사역장을 금식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는...

내가 중국으로 올 때 가지고 온 돈은 비행기 표를 끊고 남은 4만원이 전부였다. 신대원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떠난 선교이다 보니 후원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도 교회도 없었다. 한국에 남겨둔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네 명의 아이들은 주님께 맡기고 떠났다. 결국 얼마 안 가 사역비가 떨어졌다.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돈이 떨어지자 많이 불안했다. 주님이 해결해주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렸지만 마지막 한 푼이 떨어질 때까지 사역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나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다.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진 사역장에 대한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다.

다음날 북한 형제들에게 이제부터는 금식해야 한다고 말하자 북한 형제들이 물었다. “선생님, 금식이라는 건 무시잡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자 나의 설명을 듣던 북한 형제들이 마구 소리를 질러대며 화를 냈다. 방무디라는 형제는 얼굴이 달아올라 악! 악! 고향을 지르며 화를 냈다.

“아이,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함까? 아! 선생님이 한 번 우리 처지에서 생각해 보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암까? 어떡하문 공안에 잡히지 않구 살아남구 배꼽지 않구 살까 하구 왔는데 지금 우리 보구 밥을 먹지 말라는 겠까? 것두 하루두 아니구 삼일씩이나 먹지 말라는 겠까?”

주기철 형제도 고향을 치면서 말했다

“담배두 못 피게 하지 술두 못 마시게 하구 맨날 이 도깨비 책만 죽어라 하구 읽히

더니 이제는 밥두 먹지 말라는 겐까? 아씨 이게 말이 됩까!”

사역장은 순식간에 형제들이 불평하는 소리와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로 떠나갈 듯 시끄러워졌다. 이들이 이해하리라고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니 마음이 무거웠다. 마구 떠들어대던 형제들은 이 따위 사역장, 당장 떠나겠다고 소리치면서 통독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북한 형제들이 정말 떠나갈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어제 그렇게 요란하게 화를 내던 그들답지 않게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말없이 일과에 순응하며 금식을 시작했다. 그런 형제들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다. 차라리 어제처럼 소리소리 지르면서 반항이라도 하면 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다.

북한 사람들은 굶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북한 사람들이 부모와 아내와 자식까지 깡그리 다 잃어버리고 이 멀고 먼 남의 나라까지 와서 숨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의 고통은 “굶주림”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 들어있다. 이런 그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요구였다. 하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사역장의 상황을 금식으로 몰아가시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사역장 형제들과 함께 금식한 지 3일 쯤 되던 날 길림시 조선족 교회 김 집사님이 사역장에 오셨다가 우리가 쌀이 없어 굶고 있는 알고는 눈물을 툭툭 흘리셨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와!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긴 들어주네. 선생님! 이게 바로 그 응답이라는 거 아임까?”

김 집사님이 쌀을 가져오자 북한 형제들이 기뻐 필쩍필쩍 뛰면서 내게 한 말이다.

다른 때 같으면 우연이라고 끝까지 고집 부렸을 이들이 이번 사건은 오로지 자기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모습에 나는 주님이 이번 금식 기간에 하신 일을 보았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2)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달은 북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했다.

3. 나는 남조선의 이방인

중국 공안들의 호구조사 시작. 3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이사. 몇 개월을 동고동락 했어도 나는 남조선의 이방인일 뿐...

중국 공안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호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들의 호구조사는 아주 철저해서 숨어 있던 많은 범죄자들이 이 기간에 체포된다. 이 기간은 북한 형제들에게 공포의 기간이었다. 만약 공안들이 우리 사역장에 들이닥친다면 신분증도 없고 중국말도 모르는 우리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잡히고 말 것이다. 평소에도 늘 불안해하던 터에, 밖에 나갔던 조선족 형제가 우리 아파트 앞 동네까지 공안들이 돌다가 갔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형제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북한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안전이다. 우리는 한 도시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사를 다녔다. 우리는 3년 동안 무려 90개의 사역장을 옮겨 다니며 그때마다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 이 때문에 소비되는 사역비가 엄청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긴박할 때는 이사를 결심한 지 1시간 안에 움직여야 할 때도 있었다. 그때는 사용하던 일체의 가재도구들을 그대로 버리고 오로지 성경책 한 권만 달랑 들고 나왔고, 일체의 생활용품을 전부 다시 사야 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사를 다녔다.

길림시에 머문 지도 오래 됐고 때마침 중국 공안들의 호구조사도 시작되어 우리는 부랴부랴 이사를 떠났다. 사역장을 구할 돈이 없던 우리는 산둥성 제남시의 한 한국 전도사님이 묵으시던 집을 잠시 빌리기로 했다.

제남시로 이사를 가던 날이었다. 기차에 올라 화장실로 가다가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방무디 형제를 발견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밤에 몰래 밖에 나가 담배꽂초를 주어다가 피우는 그를 언짢아하고 있던 터였다. 나는 왈칵 화가 나서 사람들

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험한 말을 했다.

나의 이러한 행동에 북한 형제들은 분노했다. 집안에서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고 나를 아주 차갑게 대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몇 개월을 동고동락 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는 남조선의 이방인일 뿐이고 무디 형제는 자기들과 같은 북한 사람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북한 형제들과 한 식구가 되었다고 자만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저들과 하나가 되기에는 오랜 분단의 장벽은 너무나도 높아 보였다.

“우리가 다 같이 잡혀도 선상님은 고작 추방당하겠지만 우리는 잡혀가서 개죽음 당 하오!”

이것이 나와 그들의 차이였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역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제남에 도착한 후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다. 그제야 사역장의 분위기는 회복되었고 형제들은 오히려 나를 더 신뢰해 주었다.

그 무서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주님은 허무셨다. 나와 북한 형제들 사이의 벽도 결국 주님이 허물어 주셨다.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 나는 서로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고 총칼도 아니고 바로 주님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4. 평안의 메시지, 사과 28상자

순간, 사과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소 수레에 가득 실은 사과 28상자를 한 달 만에 먹어 치운 형제들. 그 후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제남시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집도 너무 낡고 비좁을뿐더러 내가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역장을 구할만한 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남성 정주시로 가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정주에서는 사역하기에 알맞은 집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우리는 정주에서 50평가량 되는 크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침실, 부엌, 통독실 등 사역하기에 알맞은 집이었다. 정주에 온 나는 사역장도 좋은 집으로 마련되었으니 형제들도 이제 생활에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 형제들은 며칠이 지나도 자기들의 짐을 풀지 않았다. 뭐가 하나 생겨도 보따리나 가방에 퐁퐁 싸놓고 당장 5분 후에라도 떠날 태세로 공부하고 생활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어느 곳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북한 형제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의 심령에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까?’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사과를 사라는 감동을 주셨다. 사과? 사과와 평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뭇 것이 기뻐하는 형제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 사과는 별로 비싸지 않았다. 사과 1kg이 우리 돈 200원 정도였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겨울 내내 먹을 과일을 광에 쌓아 놓으셨던 기억이 났다. 왜 사과를 사라고 하셨는지 그제야 이해되었다.

‘몇 달 동안 먹을 사과를 쌓아 놓자! 그러면 여기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

아도 저절로 알아차리겠지.’

주님의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주님은 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나는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사과란 사과는 모조리 사버렸다. 소가 끄는 수레에 사과를 한가득 싣고 사역장으로 돌아와 보니 28상자나 되었다. 넓은 부엌에 사과를 쌓아놓고 형제들에게 말했다.



통독반 식사시간.
식사는 부실했지만
항상 배부르게 먹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 사과를 다 먹으려면 여기서 반년은 살아야 해요.”

형제들은 내가 사과를 이렇게까지 많이 살 줄 몰랐던지 마냥 좋아했다.

다음날부터 형제들은 잠만 나면 부엌에 나와서 사과를 먹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의 짐 보따리도 사라졌다. 각자 자기 물건을 정리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 사역장에 눌러 앉아 반년 동안 사과 먹을 걱정들을 단단히 한 것 같았다.

형제들이 어찌나 사과를 먹어대는지 통독하다가도 먹고, 자다가도 일어나 사과를 먹곤 했다. 반년은 갈 줄 알았던 사과는 한 달이 지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반년을 있으려면 다시 사과를 사야만 했지만 사과로 인해 얻은 것이 많았다. 사라진 보따리와 함께 이들의 크고 작은 다툼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오순도순 사역장 생활에 어울리기 시작했다. 공안들의 수색과 체포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해 둔 것이 없었지만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 마냥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 그렇게 북한 형제들의 믿음도 소리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보이지 않은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5. 완전히 새사람 된 북한 형제들

북한 사람이 북한선교사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죄 사함의 감격을 맛본 형제들 무섭게 변해갔다. “북한 출신인 내가 북한선교 하겠습니다.”

당시 북한선교를 해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북한선교는 너무 어렵고, 한마디로 북한선교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거처와 음식,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과 잠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까지는 몰라도 북한 사람을 북한선교사로 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북한선교 일선에서 오래 사역한 선교사님들과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중국 조선족들, 심지어 북한 사람 본인들도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북한 형제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이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들이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북한선교는 북한 사람들이 해야 하며 또 이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함께 생활하며 하루 8시간씩 성경을 통독한 지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사납기만 하던 북한 형제들이 온순해져갔다. 모든 일에 먼저 화부터 내고 보던 이전과 달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옷차림이나 위생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한국 순교자들의 일생을 다룬 영화와 벤허, 타이타닉 같은 영화들을 보았을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눈물이라고는 모르던 이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했다. 그렇게 중요시하던 안전을 위한 기도도 뒤로 미루고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 내내 자신들의 죄를 조목조목 회개하는 데에만 시간을 할애했다. 일주일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지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어도 죄책감이 없던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서 눈물 흘리고 통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이들의 뉘우치는 눈물은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다. 늘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던 이들의 눈동자가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본 이들은 이때부터 빠르게 변해갔다. 아침저녁 기도 시간마다 북한에 있는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이렇게 큰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 북한선교는 북한 사람인 자기들이 한다는 사명까지 스스럼없이 가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지금까지는 내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 총·폭탄이 되겠다고 날뛰었으나 지금부터는 나를 구원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으며 북한 출신인 내가 북한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북한 형제들에게 북한선교사들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길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형제들을 학생들에서 나와 동등한 ‘선생’으로 격상시키고 사역장의 예배인도도 북한 형제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 주일씩 맡아 인도해 나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 사역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

형제들은 신약성경을 70독, 구약성경을 15독 이상 통독한 지라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이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1999년 1월 4일을 북한 출신 북한선교사들의 첫 설교일로 정하여 형제들에게 각자 설교 준비를 하게 했다. 형제들은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설교문을 작성하여 설교를 하는 일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들어하면서도 매우 감격해했다.

설교하는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선생은 북한에서 하던 “주말 생활총화” 방식으로 설교를 해서 서로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일주일 생활을 돌아보며 자아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식이다. 하지만 모든 선생들이 거듭되는 훈련 속에서 점점 설교하는 법도 익혀서 새벽 예배 인도를 무리 없이 잘 이끌어갔다.

6 치유의 기적과 함께 뜨거운 북한선교 출발

나는 폐병 말기로 피를 토하는 진칼빈 선생을 매일 밤 끌어안고 영영 울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키운 북한선교사인데, 얼마나 귀한 일꾼인데, 이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선생들은 사역장을 이끌어 갈 만한 충분한 자질들을 갖추게 되었다. 설교하는 수준도 나의 기대 이상이었다. 나는 이들을 얼마동안 더 훈련시킨 후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통독 사역을 위해 파송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이 파송된다면 북한 사람에 의한 북한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파송을 앞두고 북한 선생들과 나는 10일 작정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파송되어 학생을 모집해 오는 일부터 앞으로의 사역이 순간순간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쩌면 어떤 형제들은 북한 보위부나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순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0일 작정 금식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진칼빈 선생이 피를 한사발이나 토하며 쓰러져버렸다. 그는 사역장에 올 때부터 폐병을 앓고 있었다. 다급히 병원에 가보니 폐병 말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 선생은 탈북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입원할 수가 없었다. 칼빈 선생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피를 토해냈고 사역장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칼빈 선생은 북한 선생들 가운데 영적으로 제일 뛰어나고 성경 말씀도 가장 많이 깨닫고 있는 선생이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선생들은 칼빈 선생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런 그가 파송을 눈앞에 두고 쓰러져 버린 것이다. 사역장의 형제들은 모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칼빈 선생이 며칠 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다 전염될 것 같은 두려움까지 겹쳐 모두가 떨고 있었다.

나는 다급히 우리를 중보 기도해주던 소록도의 복성교회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전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우리 역시 모두가 사생결단하고 칼빈 선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 시간도 하루 두 시간에서 세 시간으로 늘렸다. 나는 매일 밤 칼빈 선생을 끌어안고 영영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키운 북한선교사인데, 얼마나 귀한 일꾼인데, 이렇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주님께 칼빈 선생을 살려 달라고 밤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다.

폐병 환자는 잘 먹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칼빈 선생 때문에 두 달 동안 돼지 두 마리와 염소 다섯 마리를 먹었다. 그렇게 계속 먹으면서 기도하니 칼빈 선생의 몸무게는 두 달 동안 20kg이나 불었고 폐병은 기적적으로 사라졌다. 나와 선생들은 모두 주님께 감사해서 울었다. 이렇게 되자 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파송되어 나가면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모두가 믿음이 충만하여 이번에는 민선주 선생의 아픈 다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했다. 선주 선생은 사역장에 올 때부터 다리를 절룩거리었다. 절룩거림은 점점 심해져 하루에 10분조차 걷기 힘들 지경이었다. 선주 선생은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그동안 중국으로 넘어와서도 5번이나 붙잡혀 복송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서 겪은 고생도 상처도 많았다. 선주 선생은 주님이 칼빈 선생의 폐병을 치료해주시는 것을 보자 자기 다리에도 희망을 갖고,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파송을 위한 10일간의 장기금식을 마치고 보호식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주 선생은 다시 금식에 들어갔다. 주님은 이번에도 우리 선생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선주 선생의 다리는 깨끗이 나아 다른 선생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뛰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선생의 치유 사건으로 모든 선생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졌다. 이 때부터 선생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주님처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해준 분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서슴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선생들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다.

7 아! 드디어 파송

파송예배를 드린 북한 선생 8명과 조선족 선생 1명,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비장한 결심으로 파송. 체포와 복송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연변으로...

한 선생들을 파송하려면 많은 사역비가 필요했다. 나는 사역비를 마련하러 한국으로 돌아왔고 내가 없는 동안 사역장은 박 베드로 선교사님께 부탁해놓았다. 내가 한국으로 나와 사역비를 마련하면 북한 선생들을 파송하기로 계획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셨다.

내가 한국으로 떠난 후 이틀 뒤에 사역장으로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다. 공안들은 그날 박 선교사님과 한국 전도사님들의 여권과 조선족 선생의 신분증을 압수하여 돌아갔다. 북한 선생들은 더 이상 사역장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 선교사님의 인도 하에 파송예배를 드린 북한 선생 8명과 조선족 선생 1명은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비장한 결심으로 연변으로 파송되어 떠나갔다. 김권능, 허익두, 최바울, 민선주, 유기풍, 진칼빈, 박요한, 방무디가 선생으로 세워져 파송되었다. 1기 선생들이 세워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선생들은 연변 지방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연변에는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탈북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북한 고위 간부들을 체포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탈북자들이나 탈북자들을 교육시키는 선교사들을 색출해 납치, 체포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선생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 연변으로 떠났다.

선생들을 파송하고 난 후 나는 필요한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쉽게 않았다. 북한 선생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우리 사역을 이곳저곳에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북한 선생들

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학생들을 모두 모집해 왔으니 빨리 사역비를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사역도 급하지만 연변 지방이 너무 위험하니 우선 남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차비라도 보내달라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무작정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여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주님은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달 보름 만에 240만원을 허락해 주셨다.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렵도 없는 돈이었지만 다급해진 나는 그 돈만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중국으로 들어와 보니 김권능 선생, 유기풍 선생, 허익두 선생, 최바울 선생이 이미 학생 모집을 끝냈고, 진칼빈 선생, 박요한 선생, 방무디 선생, 민선주 선생은 아직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가지고 온 돈은 며칠 안 가 다 떨어졌다. 학생 모집이 끝나는 선생님들부터 중국의 남방으로 들여보내 사역장을 꾸려야 할 터인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다행히도 며칠 후 산둥성 C지역 한인교회의 김무중 목사님이 중국돈 45,000위안(한국 돈 60~70만 원 정도)을 현금해 주셔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다.

민선주 선생이 연길에서 한 시간 거리인 안도 지역에서 북한 형제 4명을 모집하여 사역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선주 선생이 학생들과 함께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온 몸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사역장의 지도자로서 북한에 끌려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나는 허둥거리며 연변의 모 대학 처장님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설명하고 선주 선생 구조를 부탁드렸다. 일인당 2,000위안은 있어야 빼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급히 조선족 선생의 아버님을 통해서 8,000위안을 빌려서 보내드렸다. 처장님은 선주 선생 일을 책임지고 맡아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선주 선생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겨우 감옥에서 풀려나왔다.

8. 북한으로 끌려간 두 선생의 순교!

아! 칼빈 선생과 요한 선생. “북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라며 부둥켜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던 선생님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교의 현장으로...

진칼빈 선생과 박요한 선생은 내가 중국에 다시 들어오기까지 조선족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있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은 컸지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조선족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그러다보니 두 선생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생 모집하는 일이 늦어졌다.

5월 24일, 나는 칼빈 선생과 요한 선생을 연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뒤늦게 학생 모집에 나선 두 선생도 벌써 여러 명의 학생을 모집했고, 이제 용정에서 한두 명만 더 모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밤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그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두 선생이 갔을 만한 곳들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으나 두 선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선교사님이신 이 처장님을 찾아가 연길 공안에 두 선생이 잡혀 있지 않은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더 기다렸다. 연길 감옥에는 두 선생 같이 보이는 사람은 잡혀 있지 않다는 소식이 왔다. 그러자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두 선생이 사라진 날, 어떤 북한 사람이 두 선생에게 와서 연변의 개산툰 지방에 가면 성경 공부하러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두 선생을 개산툰 지방으로 유인해 갔다. 개산툰은 북한과 조그마한 개울을 사이에 둔 작은 국경 마을이다. 그곳으로 간 두 선생은 결국 대기하고 있던 북한 보위부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

소록도 북성교회와 나와 선생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두 선생의 소식은 다시 들리지 않았다. 북한 형제들에게 두 선생처럼 잡혀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꺼려했다. 당시 북한 보위부는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과 만나 잠깐 대화

만 주고받아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곤 했다. 북한 보위부에서 두 선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두 선생이 북한으로 잡혀간 것이 확인된 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뼈가 쭈시고 근육과 피부까지 쓰러져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북한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던 칼빈, 요한 선생. 내 생명을 쏟아 부어 키운 선생들이었다. “북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매일 함께 고백했던 선생들이었다.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이들이 겪는 고통을 맛봐야 했다.

훗날 북한으로 체포되어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형제가 도문 변방구류소 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칼빈, 요한”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았다고 전해주었다. 또 회령 지방에서 온 한 이주마이의 말에 의하면, 두 선생이 잡혀간 시기에 회령 지방에 공개처형 포고문을 보았고 두 명의 청년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처형되었다고 했다.

눈 앞에 그려지는 두 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그러나 저 얼어붙은 북한 땅에 순교의 피가 없이는 복음화가 불가능하니 스테반의 순교를 통하여 열방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 같이 우리 귀한 선생들의 피 흘림을 통해 그 땅을 복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이 흘린 피로 인해 많은 북한의 영혼들이 구원될 줄 믿고 첫 순교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1. 1998년 ~ 1999년
통독반 1기생들.
이들 중 4명은 순교하였고 2명이 목회자로 1명은 해외 선교사로 활동 중이다.

9. 순교자의 피 위에서 시작된 2기 사역

눈앞에서 4명의 학생들 체포. 살려달라고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는 학생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보고 있노라니 사랑하는 자식을 빼앗기는 아버지의 심정. 그러나 사역은 계속...

진칼빈 선생과 박요한 선생이 납치되어 가자 나머지 선생들은 모두 부랴부랴 학생들을 모집하고 중국 중서부의 깊숙한 지역으로 내려갔다. 제일 먼저 유기풍 선생이 형제들을 데리고 중경으로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허익두 선생은 하남성 정주시로 내려가 사역을 시작했다. 최바울 선생도 산둥성 제남시로 내려가 사역을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김권능 선생과 내가 1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제남시를 향해 떠났다. 하지만 나는 기차 안에서 또 한 번의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나와 권능 선생이 수차례 주의를 주었건만 들떠있던 4명의 북한 형제들이 기차 안에서 왁자지껄 떠들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철도 공안이 주의를 주러 와보니 모두가 중국어를 할 줄 몰랐다. 이를 이상히 여긴 공안이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이 있을 리 없는 북한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나와 권능 선생은 눈앞에서 4명의 학생들이 체포되는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안들에게 끌려가면서 애처로운 눈길을 보내는 학생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그 순간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깊이 아플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에 알았다. 이렇듯 우리는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선생을 잃고 학생을 잃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해 나갔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1년만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역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니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북한 선생님들은 아직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사역을 배워나갈 것이다. 나는 이들에 의해 또 수많은 북한선교사들이 배출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연변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역을 향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권능 선생은 기차에서 체포되고 남은 나머지 9명의 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다. 평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탈북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나 저들에게 성경공부만 시키기 시작하면 저들은 선생들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사납게 공격했다. 그러한 공격에 인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사역장을 책임지고 이끄는 선생이 된 후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이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권능 선생은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24살의 청년이었으나 학생들은 대부분 30대 중후반의 아저씨들이었다. 그러다보니 권능 선생의 사역은 시작부터 어려웠다. 사역의 시작과 함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북한 형제들은 여러 가지로 권능 선생을 공격했다. 술 담배를 끊게 하는 과정에서 통과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진통들, 귀신들려 발악하는 형제를 다스려야 하는 문제 등 어린 권능 선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그러한 시련 가운데 권능 선생은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기 시작했다.

10. 김의환 목사님, 많은 재정 동원해주셨다

김의환 목사님은 이 사역의 시작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분이다. 내가 신대원 졸업을 1년 앞두고 휴학하고 사역을 위해 떠날 때 당시 총신대 총장으로 계셨던 김의환 목사님을 찾아가 인사드렸다. 총장님은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자 염려하시며 나에게 물었다.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나는 이 말 밖에 할 수가 없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는 성경 말씀을 자네 아나?”

“총장님, 한국 선교사들은 말씀만 붙잡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오직 내가 주는 권능만 가지고 가라’(마 10:1,9)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총장님은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작은 기도모임을 가진 후 나의 가족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다.

그 후 성북중앙교회 당회장으로 부임되신 후부터는 여러 교회들에 호소해서 많은 헌금을 지원해 주셨다. 성북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잠실 신천교회, 성남 금광교회, 세계로교회, 송인교회, 미국, 영국, 멕시코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통해 1년에 2천 5백만 원 이상 헌금해 주셨다. 또한 목사님은 내가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선교보고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고, 하룻밤 지낼 곳이 여의치 않아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는 당신의 당회장 집무실을 선뜻 내주기도 하셨다.

2000년 2월, 목사님이 중국으로 오셔서 사역장들을 방문하실 때의 일이다. 나는 호텔에서 목사님께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 드렸다.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5명의 1기생 선생들이 53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역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고 현재 23명이 남아있으며, 남은 23명은 모두 훈련을 잘 통과해서 2기생 선생들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3개월 후면 이 2기생 선생들도 연변 지방으로 파송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5개 이상의 새로운 사역장이 세워질 것이고, 사역장의 인원도 150명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역장의 선생들이 이 문제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역 보고를 들은 목사님은 사역장 확장에 따른 사역비를 많이 걱정하셨다. 그만큼 우리 사역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역이었다. 목사님이 사역장들을 한 번 둘러보자고 하셔서 함께 김권능 사역장으로 갔다. 권능 선생 사역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북한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목사님은 북한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다.

“옆에서 이 사역을 지켜보는 나는 돈이 많이 걱정되는데, 최 선교사는 전혀 돈 걱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북한 형제들도 목사님의 말을 반갑게 받았다.

“맞습니다! 목사님. 돈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줍니다! 우린 돈 걱정 같은 건 안 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다!”



통독과정을 마치고 선생으로 세워진 학생들을 축하하며 총신대학교 김의환 총장님과 함께 식사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목사님은 새로 세워진 선생들을 보며 매우 기뻐하셨다. 이제까지 목사님이 북한에 직접 가보기도 하시고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북한 복음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 사역장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으로 나와 우리 북한 선생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다. 북한 형제들과 선생들 전원을 자신이 묵고 계시던 호텔에 초청하여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에는 단체로 청성산(靑城山) 유람까지 시켜주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11. 목숨 건 학생 모집

산속 깊은 곳에 숨어사는 북한 사람들을 찾아 목숨을 걸고 학생들을 모집 하는 북한인 선교사들. 학생 모집 무사히 마친 장만식 아바이, “내 이제 사역하다 힘들어 죽어 두 상관 없다우.”

2000년 5월 이후 2기생 학생들이 선생으로 세워져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변으로 파송되었다. 파송된 이들 선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우선 연변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북한 사람들을 찾는 일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선생들은 이들을 찾아 깊은 산속에 있는 별목장이나 광산, 농장, 양계장, 양돈장으로 찾아간다. 북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곳에서 보수 없이 오직 밥만 먹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산다. 북한 선생들도 공부하러 오기 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던 경험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잘 찾아 간다.

깊은 산골짜기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북한 사람들을 찾았다고 해도 학생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북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북한 보위부 특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생들은 일하러 온 것처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파악한다. 확실히 보위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자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보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정을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일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학생을 모집해 인원 모집을 끝내고 책임자인 김권능 선생에게 보고 하면 권능 선생은 사역 지점을 선정해주고 차비를 주었다. 연변에서 당시 우리가 머물렀던 서안까지는 기차로 3박 4일 거리였다. 이 기차 행군도 북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함정이다. 중국의 기차에서는 수시로 철도 공안이 신분증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걸리면 좁은 기차 안이라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북한으로 끌려가야만 한다. 기차 행군 기간 내내 선생들은 모집해 온 학생들과 자신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을 졸이고 긴장해야 한다.

탈북자 출신 2기생 선생 중에 나이가 58세 된 장만식 아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농촌 지역에서 당 비서를 하던 사람이었다. 학생 모집을 끝내고 돌아온 장 아바이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했다.

“선교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이요? 60이 된 놈이 이제 죽어두 열 번은 더 죽어야 하는데 거 글썄 하나님이 날 구원해주셨지 았구 됩니까? 공부두 하게 했지. 거기다가 이렇게 북한선교사루까지 만들어주셨지 았구 됩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문 감사해서 눈물만 나온다우. 선교사님 내 이제 재들을 데리구 열심히 해보겠소. 내 이제 사역하다 힘들어 죽어두 상관 없다우. 죽으라문 죽지 뭐. 내가 이제 뭐가 더 맏힌 게 있어서 몸 사리겠소? 안 그러오?”

장만식 아바이는 그렇그렇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는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주님께 감사했다. 구원받은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12. 눈물로 탄식한 장만식 아바이의 순교

“내가 공안들을 유인할 테니 그 사이에 저쪽 낮은 담장을 넘어 도망들 가야 한다. 알았지?” 결국 혼자 잡힌 장 아바이. 이미 북한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몸.

장만식 아바이 사역장 전원이 체포되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공안들은 이들 전원을 공안국으로 연행해갔다. 장만식 선생과 학생들까지 전부 7명의 북한 형제들이 체포되었다. 이들이 복송된다면 처형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다. 북한은 당시만 해도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람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면 무조건 정치범으로 낙인찍고 다시는 석방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구출해야 했다. 나와 전체 사역장이 금식기도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다. 그러나 다음날 장만식 선생 사역장의 학생들이 전원 구출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공안들은 이들을 공안국으로 체포해간 후 이들이 중국어를 전혀 못하자 조선족 여자 공안원이 통역하는 가운데 심문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탈북자들이며 이곳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공안들은 이 사역장을 후원하는 나에 대해 알아내려고 그 부분을 집중 심문했다. 공안들은 학생들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믿지 않고 모질게 때렸다. 학생들은 정말 나에 대해서도 우리 사역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각 사역장이 다른 사역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사역해왔다.

책임자가 장만식 아바이라는 것을 알자 공안들은 학생들은 더 이상 구타하지 않고 장 아바이만 집중 구타했다. 공안들은 또 다른 사역장의 위치와 이 사역장들을 후원하는 나에 대해 알아내려고 장 아바이를 모질게 때렸다고 한다. 공안들은 이미 장 아바이의 사역장 말고도 또 다른 사역장들이 서안에 있다는 것과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 아버이는 아무리 때려도 이 사역장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우겼다. 연세가 60이나 되는 노인이 얼마나 아팠으랴. 하지만 장 아버이는 나와 우리 사역장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공안들은 이들을 공안국 마당 담장 앞에 한 줄로 세워 놓고 두 명의 보초를 세워 지키게 하고는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다. 이때 몹시 얻어맞아 절뚝거리면서 운신도 하지 못하는 장 아버이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 담장 쪽으로 도망치면서 여기 있는 공안들을 유인할 테니 너희는 그 사이에 저쪽 낮은 담장을 넘어 도망들 가야 한다. 알았지?”

조금 뒤 장 아버이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낮은 담장과는 반대 방향인 높은 담장 쪽으로 달려가 담장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담장은 청년들도 넘기 힘들어 정도로 높은 담장이었다. 노인이 빠르면 얼마나 빨랐으랴. 보초를 서던 두 공안원이 장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은 일시에 낮은 담장을 넘어 도망을 쳤다. 결국 다시 잡힌 것은 장 아버지뿐이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담장을 넘은 학생이 목격한 것은 장만식 아버이를 붙잡은 두 공안원이 노인을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나와 모든 선생들이 울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주의 청년들을 살렸다.



순교한 장만식 아버지와 김누가 선생이 김권능 목사 형제와 함께 찍은 사진

13. 순교의 기도지원군, 소록도 북성교회

“우리는 여기서 순교의 자세로 기도할게요.” 그 후부터 부탁하는 기도제목마다 응답이 왔다. 눈물겨운 기도와 사랑. 나는 매번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나는 1992년 대구신학교에 편입했을 때 동기 전도사님의 소개로 소록도 북성교회에 남치용 권사님을 기도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다. 권사님은 그때부터 나를 위해 전적으로 기도해주셨다. 그리고 북성교회의 남효선 수석 장로님과 강석환 집사님 등 다른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

중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다.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니 장로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순교의 각오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북한선교 아십니까?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순교의 자세로 사역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순교의 자세로 기도할게요.”

그 후부터 북성교회에 부탁하는 기도 제목들은 전부 응답이 왔다.

나는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새벽 2시건 3시건 상관없이 무조건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드렸다. 밤낮 없이 혼신을 다해 올려주시는 이분들의 기도는 북한 형제들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가장 큰 힘이였다.

이후에 한국에 나올 때마다 나는 촉박한 일정 중에도 북성교회에는 꼭 들렀다. 선교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은 모두 자기 자식 일처럼 기뻐하셨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중보기도를 해왔지만 북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오히려 고마워하셨다. 그리고 중국 가는 여비와 사역비에 보태라며 물질로도 나를 많이 섬겨주셨다. 70세가 넘으면 매달 30,000원씩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모아두었다가 주시는 눈물겨운 사랑이었다. 소록도에 들릴 때마다 나는 이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에 매번 너무나 큰 위

로와 힘을 얻었다.

사역장의 형제들도 내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북성교회 성도님들께 편지를 써주었다. 형제들은 북한 사역을 위해 24시간 쉼 없이 올리는 중보기도의 열매로 사역장이 안전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매우 크다고 그분들께 감사를 드렸다.

형제들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며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 속에서 매일 영으로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다보니 영적으로 한 가족 같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떤 형제들은 꼭 우리 친척, 형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다고 하였고, 남 장로님의 이름을 따서 붙인 최효선 형제는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형제들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약 5:16)” 는 말씀을 믿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써서 보냈다. 북한에 복음의 불길, 말씀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북한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으며 북한 땅에 기근과 저주가 끊어지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14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

“움직이지 말았! 움직이면 죽인닷!” 76명의 체포. 가혹한 매질 속에서 2시간 이상 계속된 북한 형제들의 주여 삼창과 기도의 부르짖음.

우리 사역장이 서안에서 머무른 기간이 어느새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서안에서 3기 사역을 시작했다가 마무리했고 2001년부터 4기 사역을 시작했다. 4기 사역장의 학생들은 이제 100명이 넘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나는 사역장의 팀장들을 시내 한 음식점으로 전부 불러 모았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이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날 즈음에 갑자기 우리가 있던 방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공안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말았! 움직이면 죽인닷!”

공안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 우리 선생들을 발로 마구 차고 전기 곤봉으로 찼다. 사방에서 아우성 소리와 함께 선생들이 나동그라졌다. 공안들은 나와 팀장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윗도리를 벗겨 그 옷으로 머리를 둘러 감았다. 그리고 트럭에 짐짝 싣듯 실어 어느 한 군부대의 차고로 끌고 갔다. 당시 미국에서 우리 사역장에 왔던 나태효 목사님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심장병이 발작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앰블런스로 병원에 실려 갔다. 공안들은 나머지 모든 선생들을 머리를 땅에 박고 꿇어 엎드리게 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지키고 서있던 공안들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때렸다. 선생들은 모진 고통에 견디지 못해 고향을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새벽까지 계속 취조를 받았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고 나를 사형시키면 그것도 주님께 감사하니 절대 말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한국 영사가 참관하면 조서를 쓰겠다고 시간을 끌었다. 서안 공안국 조사관은 연길 공안국에서 보낸 40페이지가 넘는 공문

을 보여주었다. 공안들은 이미 나와 우리 사역장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내가 취조를 받고 있는 동안 연길 공안국 공안들과 연변 변방대 군인들 120여 명, 서안 공안국 공안들과 서안 군부대 군인들 200여 명은 각 사역장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체포, 연행해왔다. 새벽 3시쯤엔 12개 사역장 중 8개 사역장이, 나와 나태효 목사님을 포함한 76명의 형제들이 체포되었다.

훗날 알게 된 것은 우리 사역장에 있던 조선족 김광철 선생이 북한 보위부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우리 사역장 전부를 중국 공안에 밀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가 북한의 체제 전복을 피하는 무장 간첩 테러 단체라고 신고했던 것이다.

새벽 6시가 되자 갑자기 차고 쪽에서 “주여! 주여! 주여!”하는 합성에 이어 우렁찬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각 사역장마다 새벽 기도 시간이었다. 그와 함께 당황한 공안들의 호루라기 소리와 가혹한 매질 소리가 요란했다. 무차별 매질 속에서도 형제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는 끊이지 않고 2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나는 감사와 감격으로 통곡하며 저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행 20:32)하며 저들이 중국 감옥, 북한 감옥, 설령 순교에 자리에 이른다 해도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라고 기도했다.

15. 갑작스런 추방,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인천 공항에 도착하니 갈 곳이 없었다. 체포된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그러나 북한으로 끌려간 59명...

공안들은 내 여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를 집으로 끌고 갔다. 공안에 체포되어 온 나를 보고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조선족 공안에게 저 북한 형제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별 수 있소? 북조선으로 다시 나가야지.”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체포되지 않은 사역장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와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그때가 2001년 6월 15일이었다.

추방된 이후에 나는 곤장 아직 복송되지 않고 중국의 변방에 갇혀 있는 북한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서안에서 전체 사역을 총책임지고 이끌었던 김성근 선생, 학생 모집을 하던 이용섭 선생, 1기생 유기풍 선생이 석방되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59명의 선생들과 학생들은 북한으로 끌려갔다.

절망스러운 현실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고자 했지만 추방당한 처지라 합법적으로는 길이 없었다. 베트남이나 몽골을 통해 비밀리에 들어가는 방법도 여의치 않았다. 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탈북자들이 체포, 복송되어 오면 기독교를 접했다더라도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관대히 봐주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서가 내려진 것이다. 그 결과 서안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3개월간의 강제 노동 후

에 석방되었다. 학생들은 석방되는 대로 다시 중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온 형제들도 많았지만 사역했던 선생님들 중 여러 팀장들은 여러 팀장들은 북한에서 10년 이상의 형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나는 이용섭 선생을 통해 중국으로 다시 넘어오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서안에서 공부했던 30명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구조 사역을 진행하던 중 이용섭 선생과 1기생 김권능 선생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이용섭 선생이 4년, 김권능 선생이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권능 선생은 지금도 중국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이용섭 선생은 4년 후 석방되어 북송되었다. 북송된 이용섭 선생은 그의 가족 전부와 함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선생님들 중 8명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로 사역중이며, 몇몇은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또 몇몇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외에 중국에서 함께 하다가 한국으로 온 50여 명의 형제, 자매들 대부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대구 동도교회 정정란 권사님을 통해 열방빛 교회 및 선교회를 세우셨고 이화여대 김정권 교수님과 몇몇 교회가 함께 이들을 섬기고 있다.

나와 함께 했던 형제자매들은 지금 한국 여러 지역과 중국 감옥, 북한 감옥, 그리고 외국에까지 흩어져 있다. 이들을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섭리의 다음 페이지를 쓰고 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 나는 이 시간도 북한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과 북조선 인민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16.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했던 형제들 중 선생으로 세워진 30여명 중에 한 사람이 김철수 선생이다. 그는 2001년 6월 11일 서안에서 76명이 체포될 때 함께 체포, 북송된 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철수 선생은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처음 사역장에 들어올 때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성경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역장에서 생활한 지 7개월 쯤 지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의 감격 속에 북한선교 사명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선생으로 세워졌다.

당시에 새로 세워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막 강의가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북한 선생님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좁은 집을 춤을 덩실덩실 추며 돌아다녔다. 김철수 선생은 30분 만에 “기다려라 동방의 예루살렘이여!”라는 시를 써서 평양중앙방송 아나운서같이 낭독하였다. 시 낭독을 듣던 선생님들 중 한 두 사람이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시 중간 부분부터는 강의에 참석한 30여명의 선생님들 모두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아래에 김철수 선생이 쓴 시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탈북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북한의 모습/ 십자가 대군을 이루는 힘찬 강행군
말씀으로 눈을 뜨고/ 진리로 영생을 얻고/ 사랑으로 눈물과 마음의 상처 깨끗이 씻은 우리/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명령의 검 틀어쥐었다/ 기어이 찾아가야 할 평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어엿한 십자가 대군으로 정렬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순교자들의 숨결이 어서 오라/ 폭풍 쳐 부르는 평양!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 사랑의 복음 안고 달려가리라
평양이여! 기다려다오 기다려다오/ 동방의 예루살렘이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죄수의 몸으로 이

루게 하신 것처럼, 철수 선생도 그가 사랑의 복음을 안고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조국으로 죄수의 이름으로 돌아갔다.

그때 성막 강의에 참석했던 선생님들 중 정용철 선생과 조복화 선생 역시 복송되었다. 정 선생은 북한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총책임자이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모진 매를 맞고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 선생은 총책임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다른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썼다. 정 선생의 아들은 현재 장신대 신대원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우며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조복화 선생은 보위부에서 조사관들이 때리면서 성경 공부했느냐 예수 믿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들을 전도하다가 역시 모진 매를 맞고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통독 일과를 마친 후 함께 끼안고 “북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고백하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다. 지금도 감옥에서 옥수수 몇 알로 하루를 버티며, 시멘트 바닥에서 여름옷을 입고 모포 한 장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들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 북한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17. 탈북자들을 찾아 다시 중국으로.

추방된 지 6년 10개월만에 또 다시 오른 중국행. 탈북자들을 위해 찾기 위해 철저히 탈북자가 되기로... 갈 곳도 있을 곳도 없는 사람들,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 낯선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뿐

중국에서 추방되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정치 없이 방황하는 탈북자들에게 가 있었다. 중국으로 가고자 비자 신청을 계속 했지만 번번히 거부되었고, 할 수 없이 캄보디아, 러시아 등 중국 국경 지역을 돌아다니며 탈북자 사역을 계속하려고 노력했다. 러시아에 벌목공 출신 탈북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동양인들끼리 생활하는 것이 중국만큼 쉽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추방된 지 7년 만에 다시 중국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서둘러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기대한 것과 중국 내부 상황은 너무나 달랐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국은 내부 단속이 심했다. 그래서였는지 탈북자들을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다. 예전 사역을 도왔던 많은 지인들도 상황이 달라졌으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탈북자 선교는 어려울 거라며 난색을 표했다. 홍콩강성 하얼빈에 어렵게 사역장을 마련했지만 6개월을 찾아다녔지만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만날 수가 없었다. 함께 북한선교를 하겠다며 한국에서부터 따라 온 6명의 동역자들 중 3명이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갔다. 남아 있던 백 선교사는 12일간 금식하며 탈북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했다. 그 후 기적적으로 석자실 자매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또 다른 탈북자를 모집하기 위해 정치 없이 길을 떠났다. 탈북자를 찾기 위해 철저히 탈북자가 되었다. 그들과 같은 도망자의 심정으로 감시가 심한 문명이 있는 도시가 아닌 길도 나지 않는 시골 길을 따라 깊고 외진 조선족 마을과 탄광촌 마을을 찾아 나섰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갈 곳도, 있을 곳도 없는

사람들,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선 남의 나라에서 아무런 보호도, 인연도 없지 만 계속해서 어디론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공간들과 북한 보위 부가 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 게다가 어떤 식으로라도 돈을 벌어서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야만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이들...

무작정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도착한 영평이라는 곳은 세 상의 끝과 같은 외진 곳이었는데, 그곳에도 교회는 있었다. 탈북자를 돕는 한 집사님을 만나 4명의 자매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사역장을 찾은 자매들의 사연은 너무나 처절했다. 부모와 남편, 세 아이가 북한에서 굶어죽고 자신도 정신 이상 상태까지 이르다가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중국으로 팔려왔지만 한족 남편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며 행여 북송될까봐 5년 동안 청각장애인 행세를 했던 자매, 북한에서 남편과 아이 둘이 굶어 죽자, 마지막 딸을 살리기 위해 탈북했지만 결국 그 딸도 병으로 잃어버린 자매, 인신매매되어 팔려간 한족 남편의 집안이 3대 째 귀신을 섬기고 있어 자신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 받던 자매 등 하나 같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의 주인공들이었다. 처음엔 깊은 상처와 고생으로 독기와 증오, 의심이 가득해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공격했지만 북한에선 받아 본 적 없는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치츄 변화되어 갔다.

사역장이 어떤 곳인지도 무턱대고 따라 온 한 자매는 며칠을 지내며 좋아했다. 특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축복해줄 때 정말 좋아 울고 웃으며 행복해했다.

시작은 무척 힘들었지만 자매 사역장은 이렇게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18. 다시 시작된 북한선교, 자매 사역장의 열매들

“저는 여기서 공부하고 훈련받아도 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중국에 남아서 북한이 열릴 때까지 북한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탈북자들에게 광야와 같은 중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벼랑 끝과도 같은 중국에서 만난 진정한 신앙... 탈북자들이 찾아가야 하는 것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이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삶...

자매 사역장에 자매들이 늘어나고 통독과 기도가 쌓여가면서 특별히 병 고침의 은사들을 많이 보여 주셨다.

정옥 자매는 어느 날 배를 끌어안고 쓰러졌다. 하얼빈 대학병원에 가 보니 요로결석이었다. 수술비가 부족해 준비될 때까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모두 함께 인수하며 기도했고 한 선교사는 7일 금식을 작정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옥 자매는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와 기도할 때 계속 울었다. 그러다가 자신도 7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정옥 자매를 위한 수술비를 마련해 돌아와 대학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요로에 있던 2cm의 결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신장에 있던 0.5mm 크기의 결석들도 사라졌다.

자실 자매는 54세 아주머니로,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함경북도 도청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그녀는 탈북 후 산동성 청도에서 조선족 남자와 함께 지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얼굴 뼈가 함몰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찢어졌으며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데 조선족 남편은 병원 치료 보상금으로 나온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더 이상 돈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청도에서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삶이 조 직해서 보낸 사람들이 두 번이나 연거푸 중국 공간에 체포되어 북송되는 모습을 보고 사역장으로 오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부러진 다리에 철심을 박았던 그녀는 다리를 구

부리지도 못했고 평소에도 많이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피부 밖으로 1cm 가량의 철심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기도하던 그녀는 환상과 꿈을 자주 경험하더니 얼마 후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철심이 사라지고 무릎 관절이 정상처럼 된 것이다. 구부리지도 못했던 다리로 양반다리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뛰어다니며 운동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자실 자매는 밤낮으로 성경 읽기에 몰입하다 그만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었다. 읽어야 할 책이 많은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새벽까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절절하게 울면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회개했다. 다음 날 아침 기도 모임 중에 눈이 활짝 열렸고 안경이 없어도 책 속 깨알 같은 글자가 환히 보이게 되었다.

“선생님, 천국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시려고 그 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부터 자실 자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틈만 나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떼 쓰던 모습이 사라지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5년 동안 한국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윤 자매는 98년 사역 초기에 동역하다 순교한 주광호 선생의 제자였다. 북한에서 고아로 자라 역시 고아로 자란 남편을 만나 아이 셋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이를 잃고 남은 한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주 선생의 사역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북송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릴 때도 계속 주님을 찾으며 기도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다시 중국으로 나왔을 때 세상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전혀 없었다. 북한 정권의 억압도, 가족을 잃은 상처도 윤 자매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울 수 없었다. 윤 자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장에 들어갔다.

“저는 공부하고 훈련받아도 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중국에 남아서 북한이 열릴 때까지 북한선교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2차 사역은 주로 자매들 통독반으로 운영되었다.

한국행은 자매들의 꿈도 아니었고 천국도 아니었다. 천국은 바로 그녀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은 탈북자에게 벼랑 끝과 같은 중국에서 진정한 신앙을 만나게 하신다. 탈북자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이다. 탈북자들이 찾아 발견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삶이다.



백두산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교팀과 함께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의 축도로 시작된 성경100독학교

19. 한국에서 시작된 탈북민 성경100독학교

한국에서 다시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한국에서 북한선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는데 그 때부터 사역이 열리기 시작해... 김광신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탈북민 성경100독학교

한국에서 사역하라는 음성을 듣고 무작정 귀국해 교회를 시작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때 주님은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LA은혜한인교회의 원로목사인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교회는 탈북 청년들이 모여 들기 시작해 온수동에 사택은 너무 좁았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위치한 영등포로 자리를 옮겼고 김광신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에서 진행하던 성경통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24시간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성경통독학교를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성경통독학교를 시작하려고 하자 주변에서 만류했다. 중국에선 갈 곳 없던 탈북자들을 모아 성경통독을 할 수 있었지만 자유로운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1기 모집에 27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모였다. 여학생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갖가지 색깔로 물들인 채 들어왔고 남학생들은 몸 여기저기 새긴 문신을 과시하듯 잔뜩 드러내고 왔다. 다들 20세 언저리의 어린 청소년들이었고 한국에 온 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성경통독학교를 시작했다.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탈북한 그들은 한마디로 폭주기관차와 같았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에 조금만 훈육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한번은 학생 중 한명을 나무라자 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선생 한 명이 칼에 찔리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하지

만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어린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통독, 3시간 이상 기도, 말씀 1000절 암송이라는 스파르타식 훈련을 통해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탈북 청소년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받은 정착금은 모아 필리핀에 성경통독학교와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 성경통독학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8기가 진행 중이고 졸업생 중 현재 17명이 신대원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했다. 나는 이들이 향후 통일한국에 귀하게 쓰임 받을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 선교사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등록금이 없어 아이들을 학교도 못 보냄.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아이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 6월 추방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은 4억원 가까이 재정을 공급해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북한 사람들 350명이 먹고 입고 안전하게 살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 늘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야 했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기도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물질도 공급해주었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도 함께 배우게 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은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족들이 중국으로 들어왔지만 한 학기 등록금 50만원이 없어 아이들을 중국인 현지 학교에 조차 보낼 수 없었다. 한번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의 상황을 알게 된 그 선교사님은, 당신은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지만 아이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쳤다. 그때 혼자 많이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아이들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상에 60억 중에서 10억 이상이 문맹이었는데, 아이들 넷 중에서 셋은 글 읽을 줄 알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야 나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 포기할 때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과 순종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임을 말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과정은 한없이 고단하고 괴롭지만 순종의 열매는 참으로 놀랍도록 풍성하다.

첫째 아이는 추방된 후 한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김정고시로 통과하고 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수시합격 하였고, 중국어, 일어, 영어 구사가 수준급이다. 목회자의 사모로 북한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둘째 아이는 전국 중학생 외국어스피치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한동대를 졸업하고 뮤지컬 극단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셋째 아이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우국제학교 재단이사장님이신 조현석 목사님의 배려로 지우국제학교에서 1년째 공부하게 되면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회복하였다.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고, 라면과 과자를 먹을 수 없으며, 매일 새벽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해야 하는 이 학교의 규칙 덕분에 셋째 아이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교대를 졸업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지만 곧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막내 역시 훌륭하게 성장해 한 가정의 아내로 세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먼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북한선교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일 것이다. 나 또한 10년간 북한선교사로서 살면서 이 문제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100배의 상과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계심을 목격하고 있다.

21. 북한선교는 북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

북한 형제들과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북한선교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 약 6개월이 지나 북한 형제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 뛰며, 북한 출신인 자신들이 북한선교 하겠다고 고백해 중국에서 진행된 통독사역으로 70여명이 북한선교사로 세워졌고 그 중 8명은 한국에서 목회 중... 한국에서 진행된 통독사역 통해 17명이 신대원에 진학해 목회를 준비하고 있어...

나는 북한선교는 북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북한 사람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느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 외모와 쓰는 말과 글이 같아도 반세기 동안 그들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선교사보다는 본능적으로 북한 선생님(중국에서는 선교사를 선생이라고 부른다)이 해주는 말을 더 신뢰했다.

1998년 내가 처음 북한선교를 시작했을 때 북한선교는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이 대세였고, 특히 북한 사람을 북한선교 일꾼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북한 형제들과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북한선교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약 6개월이 지나 북한 형제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 뛰며, 북한 출신인 자신들이 북한선교 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북한 형제들을 북한선교사로 양육하는 사역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다.

나의 이런 믿음대로 계속 북한 형제들이 북한선교사로 세워졌다. 선생으로 세워져

사역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양육하는 학생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고 고백했다. 이렇듯 주님이 부여하시는 사랑으로 사역장을 이끌어가기만 속 썩이는 학생들 때문에 1년 정도 사역하고 나면 체중이 15kg 정도 줄어 들었다. 북한 선생들은 말 그대로 살을 깎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

북한 선생님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선교사 못지않게 사역을 잘 해냈다. 북한 사람들을 학생으로 모집하는 일부터 모집한 학생들을 선생으로 세워 파송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 금식과 기도로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수색과 체포의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냈고, 북한선교사들로 키워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우는 귀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70여 명의 북한 출신 북한선교사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중 8명은 현재 한국에서 목회자로 사역 중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시작한 통독반에 열매도 너무나 놀라웠다.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국의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영등포 유흥거리 뒤편에서 8년 동안 50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직 통독과 기도에만 매달려 하나님을 찾았다. 배운 것 없고 거칠고 사나운 이 북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일을 해냈다. 그 열매로 17명이 신대원을 진학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서약을 했다.

물론 북한 선생들이 실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과 24시간 함께 살지 않고는 그들을 북한선교사로 세울 수가 없는데, 북한 탈북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몇 시간, 며칠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을 같이 살아야 하는 이 일을 한국 사람은 해내기가 무척 어렵다. 북한 사람을 알고 북한 탈북자들과 지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나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북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북한 출신 선교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

22. 북한인 선교사 오천 명을 세워주소서!! 국제통독 학교를 세워 주소서!!

성경통독을 통한 북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이전 북한 출신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야...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대부흥이 다시 한 번 한반도에 임하기를... 한국에 찾아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국제통독학교가 세워지길...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역은 북한 사람을 북한선교사로 세우는 일이다. 북한 사람이 북한선교를 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북한선교를 하게 하는 것이 북한 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중국에서의 북한선교사역은 상당히 어려웠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을 피해 다녀야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탈북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한국에서의 탈북자 사역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돈도 없고 쫓겨 다니며 숨어사는 처지여서 몸도 마음도 모두 가난하기에 예수님을 비교적 쉽게 영접하고 선교사들에게도 순종적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돈도 있고 그들을 환영하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몸도 마음도 가난하지 않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여기가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또 다른 천국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 숨어 살 때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탈북자 사역도 중요하지만, 중국이나 제3국의 현장 사역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현장 사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듭난 북한 출신 선교사들이 감당할 때 더 많은 열매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훈련된 북한 출신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영혼들을 추수하는 꿈을 꾀다. 그들의 특별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은 같은 고난

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슬퍼하는 세계의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내게 북한선교는 중국과 한국에서 성경통독을 통해 주체사상으로 짊어진 북한 사람들이 깨어지고 완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말씀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성경통독이 비록 현대인처럼 바쁜 일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되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찾아온다. 이제 선교를 위해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들어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국제성경통독학교가 필요한 이유다. 성경통독으로 탈북민들을 훈련시켜 북한선교사로 만들었듯 해외 이주민들을 위한 국제성경통독학교로 그들을 훈련시켜 자국의 선교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22년 여름 제주도에 성경통독학교 출신들이 모여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20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던 북한 출신 제자들과 함께 안식하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셨다. 이 모임을 확대해서 1907년에 임했던 성령을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 그래서 시작된 집회가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어게인1907평양대부흥회’이다. 23년 1월 호서대에서 북한 출신 500명 남한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차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어게인1907 평양 심령대부흥회는 23년 7월에, 3차 집회는 24년 1월에 진행되었다. 이 집회는 1년에 2회씩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동역이 필요하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

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동역하고 있는 몇몇 귀한 분들과 교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북한 땅에 놀라운 주의 새 날이 하루 속히 이르게 하소서!! 주여 북한의 회복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소서!! 할렐루야!!



17기생 한 학생이 헌금을 세워진 필리핀 성경100독학교



23년 1월에 호서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차 어게인1907평양심령대부흥회

순교자

순교자 북한을 탈출해 먹을 것을 구하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북한에 자기 목숨을 주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광호 선생
  진갈빈 선생
  박요한 선생
  장만식 아바어
  김누가 선생
  김주복 선생

3년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은 생명들
이들의 피가 뿌려진 북한은 반드시 복음으로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순교 예상자

순교 예상자 북한을 탈출해 먹을 것을 구하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북한에 자기 목숨을 주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민선주 선생
  정용철 선생
  강규홍 선생
  이용섭 선생
  정모세 선생
  조복화 선생
  김칠수 선생
  김기철 선생
  신용재 선생
  이선장 선생
  김에진 선생

*** 열방빛선교회(황금종교회)**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4길5(당산동3가) 지하 1층
연 락 처 : 02-895-7791, 010-9737-2052
유 튜 브 : 최광선교사의 내래 TV
홈페이지: www.nkmission.org



이 책자는 열방빛선교회가 98년부터 현재까지 펼쳐 온 사역을 소개합니다.
책자의 내용은 2008년 1월 약 한 달간 22회에 걸쳐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 칼럼에 소개된 1998년
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제1차 북한선교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역경의 열매] 내용이
다루지 않았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열방빛선교회의 사역도 뒷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빛선교회에 주신 사명과 열매들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내래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